

민속
문화



덕담(德談)과 민속놀이 즐거운 설날

강 욱
자유기고가

음력 정월 초하루는 설날로서 한자어로는 한 해의 첫 날이라는 뜻을 지닌 원단(元旦)·원일(元日)·신원(新元)·세수(歲首)·연수(年首)라고 한다. 또한 조심·근신하는 날이라 해서 신일(愼日)이라고도 쓴다.

설날의 유래는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설 명절을 비롯하여 우리의 세시풍속에 대해 기록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3세기에 중국의 사가(史家) 진수(陳壽)가 쓴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이 있다. 그 기록에는 고대 부족국가의 제천의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세시풍속의 원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제천의례는 해마다 같은 시기에 주기적으로 행해졌는데, 그 때에는 하늘에 제사지내고 음주가무하며 국중대회(國中大會)를 했다고 소개되어 있다.

이 후에 나온 우리 문헌에도 설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일연(一然)의 《삼국유사》 사금갑(射琴匣)조에는 정월 대보름날 찰밥을 해 먹게된 유래담이 나와 있으며, 상해일(上亥日)·상자일(上子日)·상오일(上午日)에 금기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정초 십이지일(正初 十二支日)의 금기 풍속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설날의 하루 전인 음력 선달그믐을 ‘까치 설’이라 부른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 이래요...”

누구나 어려서 한번쯤 불러본 노래이다. 그런데 이제는 동요의 한 구절로 겨우 전하는 이 ‘까치 설’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까치설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는 ‘까치밥’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면 도움이 된다. 늦가을 감나무에 매달린 잘 익은 감을 딸 때, 너 땃개를 남겨놓는 관습이 있다. 이것을 까치밥이라 하는데 실상은 까치가 먹는 것은 아니다. 대자연의 고마움을 아는 인간의 아리따운 마음씨일 뿐이다.

새해 첫날을 여는 설날의 세시풍속으로 대표적인 것은 차례(茶禮)와 세배다. 아침 일찍 깨끗한 설빔으로 갈아입고 세찬을 차려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차례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차사(茶祀)라고도 한다.

차례가 돌아가신 조상에게 드리는 새해 인사라면 세배는 생존해 계신 어른에게 올리는 새해 인사다. 세배는 웃어른뿐만 아니라 부부지간·형제지간에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안에서 세배가 끝나면 이웃의 가까이 지내는 어른에게도 세배를 한다. 세배를 할 때 덕담(德談)을 나누는데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말을 골라서 한다.

“올해에는 장가(시집)가기 바라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소원 성취하기 바라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는 뜻’으로 덕담을 했다.

세배가 끝나면 세찬(歲饌)을 먹는다. 세찬은 떡국을 비롯하여 수정과·편육약식·강정등 설명절을 위해 새로 마련한 음식을 일컫는다. 세찬의 대표적인 음식은 떡국이다.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 한 살을 더 먹은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떡국은 새해 들어 나이를 먹게 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떡국은 맵쌀로 빚은 흰떡으로 만드는데, 칼로 얇게 썰어 쇠고기나 닭고기 국물에 넣어 끓인다. 원래는 꿩고기 국으로 끓이는 것이었으나, 꿩을 구하기가 힘들어 대신 닭고기나 쇠고기를 쓰기도 한다. 속담에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다.

설날이면 대나무로 만든 복조리를 걸어 한 해 동안 복이 들어오기를 기원했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각 집의 앞마당으로 복조리가 날라 들어 왔는데 던지는 사람은 어디 사람들인지 확실히 모른다. 정월 보름 경에 외지 청년들이 복조리 값을 받으러 오는데 거절할 수 없다. 요즘 돈으로 2,000원이나 3,000원을 주었다. 복조리는 반드시 한 쌍이 되도록 두 개를 엇갈리게 묶어서 놓는데 이는 화목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정초에는 제액(除厄)을 위한 여러 가지 세시 풍속이 있다. 각 가정에서는 세화(歲畵)라 하여 대문에 용, 호랑이, 닭을 그려 붙여 액이 물러가기를 빌었고, 삼재(三災)를 면하기 위한 부적을 붙였다. 닭은 새벽 밝음을 알리는 동물이며, 호랑이와 용은 두려움과 공경의 대상으로 이들을 통해 액막이를 한 것이다.

정월 초하루 밤에는 야광귀(夜光鬼)라는 귀신이 집을 찾아와 신발을 신어보고 맞으면 신고 간다하여 신발을 감춰 놓고 잤다. 신발을 잃은 사람에게 불행이 닥쳐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정월 열 엿새를 귀신날이라 하여 이 날 신발을 엮어놓으며 방액하는 풍속이 있다.

정초에 즐기는 세시 놀이로는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돈치기, 제기차기, 쥐불놀이, 햇불싸움, 다리밟기, 줄다리기, 고싸움, 지신밟기등 수도 없이 많다. 여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 겨울 추위를 극복하고 또 즐거움을 찾게 되는 놀이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윷놀이는 설날의 정취를 잘 나타내는 놀이로써,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널리 즐겼다. 윷놀이는 척사(擲柶)라고도 한다. 윷은 주로 박달나무, 또는 싸리나 그 밖의 단단한 나무로 만들며 채윷이라고도 하는 장작윷과 밤윷의 두 종류가 있다.

널뛰기는 여자들의 놀이로 짚단이나 가마니를 받침으로 하여 길다란 널판지를 놓고, 양끝에 한사람씩 올라가서 한쪽에서 힘껏 내리 디디면 한쪽에서 높이 솟아오른다. 흰색의 설빔으로 곱게 단장하고 널을 뛰는 모습은 활기가 넘친다. 나부끼는 웃고름과 치마 자락이 그림과도 같이 아름답다.

연날리기는 남자들이 즐기는 놀이다. 연날리기는 선달그믐에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연을 날리는 때는 정초부터 보름까지이다. 특히 정월 보름날에는 액막이라고 해서 소년과 청년들이 연날리기를 많이 한다. 액막이는 그 해의 재앙을 멀리 쫓아버린다는 것으로 연 꼬리에 ‘송액(送厄)’이나 ‘송액영복(送厄迎福)’이라는 등의 글자를 쓴다. 연(鳶)이 높이 날아올랐을 때 연 실에 불을 붙여 실을 끊어 연을 멀리 날려 보냈다.

아이들 놀이로는 제기차기가 있다. 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동네제기’가 으뜸이다. 사내아이 10여명이 둥글게 마주서서 차고 또 차는데, 서양의 경기처럼 받아 내기 어렵게 차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받아 차기를 한 나절씩 계속하니 이름 그대로 동네방네 모두가 이웃사촌이 되는 놀이이다. 🍵

